



# 이승훈 '아시아 전설'이 되다

빙속 팀추월 은메달 획득  
통산 4개 '아시아 전설'  
유럽·북미 전유물 장거리  
오랜 기간 꾸준한 성과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타를 넘어 아시아의 '레전드'를 향해 뚝뚝씩 걷는 이승훈(대한항공)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자신의 선수 이력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승훈은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팀추월 결승에서 정재원(동북대)·김민석(성남시청)과 호흡을 맞춰 3분38초5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을 따내고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팀추월 은메달을 이끈 이승훈은 이로써 통산 4번째 올림픽 메달을 수확했다.

아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올림픽에서 통산 4개의 메달을 수집한 것은 이승훈이 최적이다.

이승훈 이전까지는 '빙속 여제' 이상화(금·2·은 1), 일본의 시미즈 히로야스(금 1·은 1·동 1)·고다이라 나오키(금 1·은 2), 중국의 예차오보(은 2·동 1) 등이 통산 3개의 메달을 따낸 것이 아시아 빙속 선수의 최다 기록이었다.

이날 여자 팀추월에서 금메달을 따낸 일본의 다카기 미호도 평창에서만 3개째를 획득했다.

이승훈은 또 이상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3개 대회 연속 메달을 획득한 아시아 선수가 됐다. 남자 선수로는 처음이다. 시미즈·고다이라·예차오보는 모두 두 번의 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땀다.

통산 10개의 메달을 따낸 '오렌지 찰녀' 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나 8개 메달을 수집한 '빙속 황제' 스펀 크라머(네덜란드) 등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체 조건이 불리하고 스케이팅의 저변이 좁은 아시아권에서 어려움을 딛고 이뤄낸 귀중한 성과다.

이승훈은 이전까지는 유럽·북미 선수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져 온 장거리 빙속에서 오랜 기간 꾸준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전설'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이승훈 외에 통산 3개의 메달을 따낸 아시아 선수들은 모두 중·단거리를 주 종목으로 삼은 선수들이다.

특히 팀추월에서 따낸 2개의 메달은 레이스를 도맡아 이끌다시피 하면서 이른 성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이날 준결승전에서도 이승훈은 0.43초 차이로 뒤지던 상황에서 공기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 선두 주자로 나가 체력적인 한계를 이겨내고 0.71초 차이로 승리하는 데



지난 21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 준결승전에서 한국 대표팀 이승훈(흰색)이 결승선을 통과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연합뉴스

역전극을 일궈냈다. 결승전에서도 비록 승리하지는 못했으나 이승훈이 선두에 설 때면 노르웨이와 격차를 줄이는 상황이 반복됐다.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보여준 셈이다. 이승훈은 경기 후 '나이 어린 동생들과 팀워크를 어떻게 쌓았나'라는 질문에 "4차례 월드컵 대회와 훈련을 통해 보완해 나갔다"라고 말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5,000m에서 5위, 10,000m에서 4위를 기록해 어렵게 메달을 놓쳤지만, 팀 추월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을 목에 걸었다. 체력적인 부담이 없는지 묻는 말에 "부담이 없었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몸 상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 잘 극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5위, 4위에 이어 2위 자리에 올랐다. 마치 계단 오르기를 하듯 점점 순위가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둔 주 종목 매스스타트

에 관한 목표를 묻는 말엔 "5위, 4위, 2위를 했으니 이번엔 금메달이 목"이라며 "다만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 걱정이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잘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은 오는 24일에는 주 종목이자 전략 종목인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통산 5번째 메달의 금자탑 쌓기에 도전한다. 매스스타트에서는 이승훈이 절대 강자로 여겨지는 만큼 5번째 메달은 '금빛'으로 장식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관한 목표를 묻는 말엔 "5위, 4위, 2위를 했으니 이번엔 금메달이 목"이라며 "다만 변수가 많은 종목이라 걱정이지만, 어떤 상황이 오든 잘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은 오는 24일에는 주 종목이자 전략 종목인 남자 매스스타트에서 통산 5번째 메달의 금자탑 쌓기에 도전한다. 매스스타트에서는 이승훈이 절대 강자로 여겨지는 만큼 5번째 메달은 '금빛'으로 장식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 선수·관중 함께 하는 '미래의 물결'

### 미리보는 폐막식

전 세계를 뜨겁게 하나로 만들었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는 25일 오후 8시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열전을 마감한다.

폐막식은 기존의 틀을 깨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도전정신을 의미하는 'The Next Wave(미래의 물결)'을 주제로, 92개 참가국의 2천여 명의 선수들과 자원봉사자, 관람객들이 하나가 되는 무대가 선보여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총 4개의 문화공연으로 구성된 폐막식은 조화와 융합을 통한 공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한국적인 색채와 혁신적인 현대 아트의 결합, 그리고 K-POP 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더욱 현대적이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표현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한류스타인 씨엘, 엑소가 출연해 폐막식의 열기를 고조시킨다. 엑소는 대표곡인 '오르랑'을, 씨엘은 '내가 제일 잘나가'로 무대를 꾸미며 이들 외에도 다른 가수들이 공연에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또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베이징을 소개하는 순서에는 지난 2008년 베이징하계올림픽 개막공연에서의 뛰어난 연출능력으로 호평을 받은 장모도 감독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막식에서 화제를 모았던 드론들이 다시 한번 평창 하늘을 다시 한 번 수놓을 예정이며 각각 선수단이 함께 어우러진 선수단 입장, 신인 IOC 선수위원 선출, 자원봉사자 치하 등의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순서로, 세계 최고의 EDM DJ가 진행하는 경쾌하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출연전, 선수단이 하나가 돼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개회식과 이어져 있는 행사라면 폐막식은 선수들이 대회를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라며 "개회식보다 흥겹고 현대적인 공연들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막식 당일 최저온도가 영하 3도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직위는 개회식과 마찬가지로 폐막식에서도 모든 관람객에게 판초 우의와 무릎 담요, 핫팩 방석, 손핫팩, 발핫팩, 모자 등 방한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막식 당일, 개·폐회식장이 위치한 평창 올림픽 플라자는 오후 4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조직위는 조기 입장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창동계 올림픽 공동취재단=김진수기자

## 문 대통령-이방카 오늘 만찬 북미대화 '중재외교' 2라운드

### 트럼프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선임고문의 23일 청와대 상춘제 만찬을 계기로 북미대화 성사를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2라운드로 접어든다.

이방카 선임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북미대화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만남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특사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서울 회동이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간지 불과 2주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북미대화 재추진을 위한 한미간 조율작업이 긴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방카 고문에게 미국이 북미대화에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펜스-김여정' 접촉을 추진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만큼 이번 회동을 계기로 '대화의 모멘텀'을 최대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대화 의지가 표출된 만큼 북한의 속내와 한국의 중재 역할에 따라 북미 대화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문 대통령은 이방카 고문과의 회동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은 이방카 고문의 방한과

북한 문제와의 연계성에 선을 긋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방카 고문이 방한 기간에 북한 문제에 어떠한 관심도 집중할 계획이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방카 고문은 방한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경기 관람, 미국 선수나 관중과의 소통 등에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카 고문 역시 성명을 내고 "올림픽 폐막식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게 돼 영광"이라며 "우리는 미국 선수단과 선수들의 성취를 축하하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비록 북한의 요청으로 대북 접촉을 시도하긴 했지만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굳이 대화에 얽매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사로 분석된다.

물론 펜스 부통령이 북미대화가 무산된 이후에도 귀국 전용기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는 북미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양자 모두 일단 대화 의지를 보였고 중재를 통해 성사 직전까지 갔던 점을 반추해 지금이야말로 북미대화 적기라는 점을 이방카 선임고문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 찾아온 현재의 한반도 평화 기류를 지렛대로 북미 양국이 대화의 '불씨'만은 꺼뜨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

## 北 김영철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 폐회식 참석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대표단이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오늘 오전 이란 내용이 담긴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단원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수행원 6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남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당 통일전선부장을 맡고 있으며 리선권 위원장은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이어서 남북은 이들의 방남을 계기로 평창올림픽 이후의 관계 복원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서울 국가정보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철 통전부장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 간의 별도 회동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지분물건/문중산 특별우대!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오전·경매**  
담당 최선규.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6기) 광주교육대학교(17기)  
개강일시 ·해요일 오전반: 2018. 3. 6.(화) 09:10 (총6주반)  
·금요일 오전반: 2018. 3. 9.(금) 09:10 (총6주반)  
·토요일 오전반: 2018. 3. 10.(토) 09:10 (총6주반)  
·토요일 오후반: 2018. 3. 10.(토) 14:10 (총6주반)  
모집기간 2018. 2. 1(목)~3. 10.(토) 2018. 2. 1(목)~3. 10.(토)  
수업기간 2018. 3. 6.(화)~2018. 8. 18.(토) 2018. 3. 5.(월)~2018. 8. 18.(토)  
(6개월 24주 96시간)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광주은행:148-107-307803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정 명의로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방과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문의처 ·문 의:062)950-3582~4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지도교수(선명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부동산 컨설팅과 재테크 실전과정**  
부동산경매/공매, 부실채권(NPL), 팽처리APT 등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가)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매일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특강  
▶ 강의기간: 3월~6월(15주) 매주 수요일 15시/19시  
▶ 특별수강료: 20만원(선착순 50명 마감)  
▶ 접수신청상담: 조선대 평생교육원 ☎(062)230-7700  
**무료 공개 강의**  
2018년 부동산전망과 재테크 성공전략 특강  
일시: 조선대 평생교육원 3월 7일(수) 19시  
장소: 평생선 강의실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